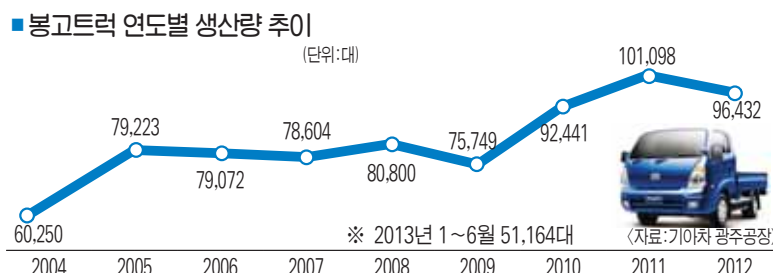


서민 생계 뒷전... “증대물량 검증 먼저” 주장만

서민경제의 대들보, 봉고트럭 증산 시급하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최근 2공장 위주의 62만대 증산을 최종합의한 가운데 3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트럭의 증산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았다. 생계형 화물차로, 수요가 수년째 몰리고 있지만 생산량 한계에 부딪혀 주문적 체납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광주공장의 대표 생산차량인 ‘서민 경제의 발’ 봉고트럭 증산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본다.



속 표류중이다. 3년여 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거쳤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협상 당사자인 봉고트럭 라인의 노조 대의원은 이달 들어 증산협의 중단선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망연자실한 상황. 봉고트럭 생산량은 2009년 7만5749대에서 2012년 9만6432대까지 늘어났지만 대의원측은 ‘철저한 증대물량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민 재산목록 1호’로 불리면서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 포터와 더불어 수년째 인기차종 1·2위를 휩쓰는 봉고트럭이 생산적체 탓에 갈수록 구입이 힘들어지자 고객들은 불만을 넘어 기아차를 비난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다.

봉고트럭 주문대고객인 이모(35)씨는 “1t 트럭 사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구상해 놓은 사업을 하기 위해 당장 차가 필요한데 돈이 있어도 쉽게 사질 못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00여차례 협의 불구 노조 협상 일방 중단 주문대기물량 2만대... 계약해지 30% 육박

〈上〉노조 반대에 발목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더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차가 정말 출고될지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갔어요.”

광주 북구에서 채소를 배달하는 자영업자 최모(47)씨는 올해 초 9년간 타던 봉고트럭을 폐차한 뒤 새 봉고트럭을 계약했다. 주문이 밀려있는 줄은 알았지만 대기 시간은 갈수록 길어졌다. 차량 영업사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최씨는 급한 마음에 중고 트럭을 구입했지만 찜찜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생계형 화물차인 봉고트럭의 증산이 시

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기아차에 따르면 봉고트럭은 현재 주문 대기물량만 2만대(내수 9000대·수출 1만1000대)로, 계약 뒤 차를 인도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릴 정도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율만 30%에 이른 다.

기아차는 3년 전부터 증산계획을 세웠지만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광주공장이 지난 2011년 내놓은 62만대 증산계획에서 1·2공장 증산은 광주공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이 강했다. 하지만 3공장의 봉고트럭 증산은 대기물량 해소라는 보다

다급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당시 계획은 3공장의 23.1UPH(시간당 생산대수)를 25.1UPH로 2UPH(시간당 2대)를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봉고트럭은 지난 2010년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1년에는 최초로 연간 생산량이 10만대를 돌파했다. 판매량에 다가가기 위해 3년 넘게 주말에도 특근을 실시했지만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주문물량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증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증산에 따른 노사협의는 계

올 광주·전남 수출 600억 달러 육박할 듯

무역협회, 자동차·반도체 호조 사상 최대 전망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내놓은 ‘2013년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6.0% 증가한 594.1억 달러로 6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수출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과 지역 자동차 증산 합의에 따른 공급불안 해소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61.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남지역 수출은 하반기부터 드릴십(FPSO)·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 본격화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중국 수출 호조가

뒷받침되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32.3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은 일본의 엔저 여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등 여러 가지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2.9% 증가해 비교적 선방했다”며 “하반기에도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휴가철 여행용 가방 잘 팔린다

광주신세계, 20% 신장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휴가철 여행용 가방 판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휴가철

여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6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여행용 가방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리

수 이상 늘어나면서 바캉스 용품의 수요로 이어졌기 때문.

특히 인기를 끄는 품목은 15만원대의 여행용 트렁크로, ‘소노비’, ‘시슬리’ 등 매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올라섰다. ‘샘소나이트’의 30~40만원대 여행가방도 지난해보다 24%나 판매가 늘어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휴가철을 맞아 여행용 가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2일 광주신세계 2층의 한 가방매장에서 고객들이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송기진 회장 적은 연봉에 경영 가장 잘했다

CEO스코어, 금융권 연봉 분석

광주은행 송기진 회장(사진)이 최근 2년간 은행권 등기이사 가운데 가장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은행 경영은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및 CEO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금융권의 최근 2년간 등기이사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C 은행 은행장 리차드 윌이 평균 7억1600만원으로 13개 은행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은행 송기진 회장은 평균 2억5000만원(2011년 2억5000만원, 2012년 2억5000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광주은행 송기진 회장은 조사 13개 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연봉인 2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 8.8% 소폭 줄어, 13개 은행 가운데 가장 은행경영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13개 은행 가운데 12곳이 순이익이 감소할 정도로 실질적 부진했던 가운데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경영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연봉을 기록한 SC 은행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9% 감소했으며 두번째로 고연봉인 외환은행의 경우 순이익이 무려 60.2%나 줄어들어 12개 은행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외환은행(은행장 윤용호)이 2년간 평균 6억9900만원으로 은행권 2위를 차지했으며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6억2100만원으로 3위, 하나은행(은행장 김중준)과 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각각 5억7000만원과 5억3500만원으로 4~5위를 기록했다. 대구은행(은행장 하순수)과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3억원대였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광주디자인센터가 22일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디자인 연구개발과 상용화, 마케팅을 연계하는 ‘광주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개발 역량 강화와 디자인 개발 및 산업화, 상용화 및 마케팅 프로모션, 디자인 트렌드 제공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디자인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왕립예술원(Royal College of Art·RCA)과 디자이너 25명이 ‘대나무의 힘’(The Power of Bamboo)을 주제로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지속가능한 RCA 디자인워크숍’을 연다.

또 광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버스과 택시 승강장, 택시기사 유니폼, 어린이집 등 공공환경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지역 음식 문화와 연계한 대표 음식 5종을 선보이고, 동양화나 전통공예를 응용한 생활디자인도 공개한다. 발과 정원을 융합한 가든 디자인과 에너지 제로 디자인 등 환경친화적인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세계적인 건축디자인사 쿠마 렌고(일본)의 주요 작품도 볼 수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를 주제로 9월6일부터 11월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주식투자인구

7년만에 첫 감소세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2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

식투자 인구는 작년 말 기준 50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528만명에 비해 5.1% 감소했다.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2005년 354만명, 2006년 361만명, 2007년 444만명, 2008년 463만명, 2009년 467만명, 2010년 479만명, 2011년 528만명 등으로 지난 6년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80.35 (+8.94)	▼ 코스닥지수 541.14 (-0.73)	▲ 금리 (국고채 3년) 2.85% (0.00)	▼ 원·달러 환율 1118.90원 (-2.80)
----------------------------	---------------------------	-------------------------------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 장건강, 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